

르네상스시대 복식에 대한 파노프스키(Panofsky)의 도상학적 해석

이 은 지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강사

요 약

르네상스를 지배한 인본주의 사상은 다양하고 심도있게 미술에 전환되어 고도의 정신성과 철학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도상해석학의 출현을 보게 했으며 이는 르네상스시대의 복식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근세 르네상스시대의 개막과 함께 나타난 궁정문화와 유행으로서의 패션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특히, 르네상스시대의 복식의 표현양상은 근대 이후의 서양복식의 미적 표현형식의 원천이 되었으며 현대적 복식 개념으로서 개체성을 부여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미적 표현양상은 여타 예술과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상응하여 전환적인 혁신의 경향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르네상스시대 궁정복식의 의미와 표현에 있어서 파노프스키의 분석이론 범주를 도입하여 복식에 대한 예술과 문화사적 해석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의미구조와 상징가치를 이론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각 요소들의 논증을 토대로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에서 제공하는 이론의 범주를 대입하여 형식적, 주제 요소들을 통해서 그 내적 의미인 복식의 상징적 가치를 해석하였다.

주제어: 르네상스 복식, 인본주의, 복식의 내재적 의미, 도상학적 분석과 해석

I. 서론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에 따르면 인간이 세계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은 단지 여러 가지 재현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한 방식을 알 수 있다.¹⁾ 예술적 표현은 상징이나 재현의 방법으로 문화와 시대를 표상한다. 이는 한 시대에 구축된 표현의 양식이 이전 시대의 표현 의미를 해체하고, 새로운 표현 양식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됨을 의미한다. 복식이란 무엇보다도 인간 정신의 집합적 표출로서 시대나 민족 또는 개인의 기질, 성향 나아가 미의식에 대한 결정체라 하였다.²⁾ 복식의 미학적 표현은 지속적인 창안과 혁신의 결과로서 시대마다 고유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복식의 유행을 의미하는 용어인 패션은 변화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문화의 전역에 걸쳐 작용되는 가치판단이 내재된 용어라 하였다.³⁾ 패션을 새로운 복식양식이 일정한 기간과 범위의 사람들간의 모방심에 의해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았을 때, 근세 르네상스시대의 개막과 함께 나타난 궁정문화와 유행으로서의 패션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르네상스시대의 궁정복식의 표현양상은 근대 이후의 서양복식의 미적 표현형식의 원천이 되었으며 현대적 복식 개념의 시발이기도 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미적 표현양상은 여타 예술과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상응하여 전환적인 혁신의 경향을 띠고 있다. 르네상스시대는 서구문명 발전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이성주의와 합리성에 기초한 과학의 발전, 인본주의의 전통이 형성되어 사회문화와 예술전반에 걸쳐 진보와 발전의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르네상스를 지배한 인본주의 사고는 다양하고 심도 있게 미술계에도 침전되어 고도의 정신성과 철학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도상해석학의 출현을

보게 했으며, 이는 르네상스시대의 복식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시사하고 있다.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는 미술헌자로 르네상스 미술연구의 초석을 이룩하였으며 그의 방법론인 도상해석학(iconology)은 르네상스 미술 심층에 존재하는 내재적 의미(intrinsic meaning)의 규명을 목표로 하였다. 미적 대상의 심층에 숨어 있는 의미를 추구하는 그의 도상해석학은 대상의 의미와 상징을 연구하는 의미분석 방법론으로서, 작품에 나타나는 시각적 징후를 통해 시대정신을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를 획기적으로 재구성한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을 고찰하고 그 시대의 미의식과 사회 문화적인 변화요인들을 이해하고 연관성을 모색하는 것은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항이다.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적 해석을 원용한 형상예술의 연구는 복식 분야는 물론 건축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르네상스시대의 복식에 대한 시도는 드문 것 같다.

본 연구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서유럽 여러 왕조국가에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궁정복식의 의미와 표현에 있어서 파노프스키의 분석이론을 도입하여 복식에 대한 예술과 문화사적 해석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의미와 상징가치에 이론적 정당성을 설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파노프스키의 예술작품 해석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여 밝히고자 한다.

첫째, 르네상스시대의 사회·문화의 양상과 동시대 예술의 미적 가치 및 상징성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르네상스 예술의 미학적 가치는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시대적 미의식을 공유하는가?

셋째, 르네상스시대의 예술 해석에 대한 중심이론인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으로 동 시대의 복

식의 정신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방법은 동 시대 복식에 내재된 상징과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서 르네상스시대의 사회·문화와 예술미에 대해 사적고찰과 분석을 행하였으며, 르네상스시대의 시간적 정의는 르네상스 운동이 13세기와 14세기에 시작되어 15세기 중반과 1500년경에 그 정점을 이루었다고 보았을 때, 1350년에서 1600년 사이 즉, 14세기 중반에서 16세기까지로 규정한 터너 콕스(Turner Wilcox)⁴⁾의 견해에 따르고자 한다.

II.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도상해석학은 미술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형식과 대별하여 다루는 미술사의 한 분야로서 조형미술 작품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조망하고 당시의 문화적 문맥으로 돌아가서 그 때 사람들의 눈에는 작품의 내용이 어떤 의미로 비쳤을지, 또는 어떤 의미에 빚대어 작품이 표현되었는지 밝혀내는 연구 방법론이다.

도상해석학은 미술의 형태면보다 지적인 면에 더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각적 형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기능을 고찰하게 한다. 그래서 종교나 철학이라는 고차원의 세계를 표상하는 예술적인 형상은 외부 세계의 모방을 목적으로 한 형상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특히 도상해석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실체의 세계를 반영하는 미술의 목적을 종교 미술이나 일반 미술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파노프스키가 제시한 해석들은 조형예술 작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미들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미술사학의 분야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아이코노

로지(iconology)의 목적은 그림 안의 여러 형식적, 주제적 단서들을 통해서 당시에 특정 화가 뿐 아니라 그외 동 시대인이 공유한 인간 내면의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경향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런 경향성 또는 내재적인 의미는 미술 뿐 아니라 당시의 문학, 음악, 신학, 정치이론 등의 이면에 통일적인 흐름으로, 그림의 형식과 내용에 문화적 징후로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기본적인 원칙들, 즉 내재적인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당대 사회와 문화의 모든 이면에 대한 복합적인 통찰이 요구된다.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에서 일차적 또는 자연적 주제를 밝히는 첫 단계는 작품의 형식을 인지하는 단계로서 이는 사실의미와 표현의미로 나누어진다. 일차적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형태들을 확인해낸다. 이와 같이 일차적 혹은 자연적 의미의 매개체로 파악되는 순수 형태의 세계는 예술적 모티브의 세계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이러한 모티브들의 열거 작업을 파노프스키는 전(前)도상학적(pre-iconographical)기술이라고 하였다.⁵⁾

이차적 또는 관습적 주제를 밝히는 둘째 단계는 주제 판명과 내용을 인식하는 신원 확인의 단계이며 주제의 전통적 유형을 파악한다. 이차적 의미는 예술적 모티브의 조합과 테마나 개념의 연결에 의해 파악된다. 이렇듯 이차적 또는 관습적 의미의 매개체로 확인되는 모티브는 이미지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이미지들이 결합하여 고대의 미술 이론가들이 소위 작품의 '창안(invenzion)'이라 일컬었던 것이 탄생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 또는 알레고리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미지와 이야기, 그리고 알레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은 좁은 의미의 도상학 영역에 속한다.

셋째 단계는 본래 의미 또는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단계로서 작품의 내재적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는 작품의 문화적 징후로 나타나는 디테일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의미체계를 파악하

<표 1>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 방법론에 대한 단계별 분류

해석의 대상	해석 행위	해석 도구	해석의 수정 원리
I. 일차적 또는 자연적 주제(A) 사실, (B) 표현 의미로 예술의 모티브의 세계를 구성	- 전도상학적 기술 (일종의 형식적 분석)	- 실제 경험 (사물과 사건에 관한 친밀성)	- 양식사 (어떠한 방식으로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가에 관한 통찰력)
II. 이차적 또는 관습적 주제로 이미지, 이야기, 알레고리의 세계를 구성.	- 좁은 의미의 도상학적 분석	- 문헌적 지식 (특정 테마나 개념에 관한 친밀성)	- 유형사 (특정 테마나 개념이 다양한 역사 조건 아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물체와 사건을 통해 표현되는가에 관한 통찰력)
III. 본래 의미 또는 의미 내용으로 '상징'가치의 세계를 구성.	- 깊은 의미의 도상학적 해석	- 종합 직관으로서 개인의 심리와 '세계관'에 의해 좌우	- 문화적 징후 또는 일반적인 '상징'의 역사

는 것이다. 본래 의미나 의미 내용의 해석 대상은 이미지와 이야기, 알레고리가 아니라 앞서 '상징' 가치로 일컬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문헌을 통해 전해지는 특정 테마나 개념에 대해 친숙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근본 원칙으로서, 이는 모티브의 선택과 표현 과정에서 근거를 이루고, 이미지나 이야기, 알레고리를 제작하고 해석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며, 심지어 형태적 구성 작업이나 적용되는 기법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표 1>.

내재적 의미는 인간 내면의 일반적이고도 본질적인 경향들로서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예술작품들은 상징적 가치를 드러내는 징후(symptom)라고 볼 수 있다. 깊은 의미에서의 도상학은 분석보다는 종합을 통해 구현되는 해석방법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도상학적 분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모티브의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듯이, 깊은 의미의 도상학적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미지, 이야기 및 알레고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III. 르네상스시대의 문화와 예술의 특성

1. 르네상스시대 사회문화의 지배적 양상

1) 자아와 개인성의 발전

중세시대의 인간은 외부 세계를 향한 의식과 자기 내면을 향한 의식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종·민족·당파·단체·가족 따위의 보편적인 범주로만 이해하였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기의 인간은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루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불어 주관적인 의식도 가지게 되면서 독자적인 인간으로서의 개체가 되었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각하였다.⁶⁾

개인주의의 태동은 전체적이고 비합법적인 기존의 국가권력에서 내면적으로 벗어났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려 했고, 이러한 자의식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르네상스 문화를 매개로 하여 유럽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고, 이후로 유럽인들의 삶을 이어주는 차원 높은 매개물이 되었다. 자의식의 발달은 중세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개개인의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양산했다. 르네상스와 중세를 가르는 세속성은 먼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사고와 의식이 물밑듯이 밀려오면서 일어났다.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의 차이는 중세의 사회가

어느 종류의 공통적인 유사성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르네상스시대에는 그 다양성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이다. 중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뭉쳐 있어서 새로운 결합의 필요가 없었고 또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사고체계가 같았다. 그러나 르네상스시대에는 극히 다양한 사람들과 그 색다른 유형이 사회적인 욕구와 즐거움을 모색하고 분출해 낸다. 중세 사람의 획일적인 사상과 삶의 보람은 오로지 내세의 지복을 위한 것으로 현세의 고난을 정당화 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각자 능력껏 살아가고 고유의 재능을 발휘하여 마땅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또 남보다 더 우수함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⁷⁾

이 같은 르네상스시대의 주체적인 인간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신념과 의지로 지식을 탐구하고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관(靜觀)적이고 수동적인 중세의 인간관을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인간관으로 전환한 르네상스시대의 인문주의 신념은 극히 개척적인 성격으로 이후 서구 사회구조와 문화전반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2)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배관 형성

발전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가 있었던 시대들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룬 르네상스의 정신은 외부 세계의 발견에 눈을 돌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였다. 십자군 원정은 모든 유럽인에게 먼 이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고 모험적인 유랑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모험심이 지식욕과 지배욕으로 이어졌고 함선의 개발은 동방교역의 획기적인 확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아메리카대륙 발견은 유럽인들에게 외부세계를 향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고대 그리스나 성서에도 언급이 없는

새로운 땅이 나타나자 성서를 중시하고 고전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태도에서 실제로 관찰하고 생각하는 르네상스시대의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보다 설득력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후 유럽 여러 나라가 식민지 쟁탈 경쟁결과로 인한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자의 독립투쟁의 반복이 되었으니,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래 중남미를 손에 넣은 스페인의 뒤를 이어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 정복 경쟁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었다. 유럽의 항해가들은 15세기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중국에 도착할 수 있는 항해실력을 갖게 되었다. 탐험가들의 항해 이야기는 마치 우주 탐험이 오늘날 세계를 매료시키는 것처럼 르네상스시대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르네상스시대의 유럽은 미술, 문학, 철학, 과학 분야에서 미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는데, 이제 새로운 땅까지 나타나 그들의 도전심을 한껏 자극한 것이다. 신대륙은 많은 유럽인들에게 토머스 모어(Thomas More)가 말한 허구의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의 유토피아로 자리잡았다.⁸⁾

3) 과학과 합리성의 발견

인간성에 새로이 눈을 뜬 르네상스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 눈 앞에 발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동시에 그 본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이미 인문주의자들에 의하여서 그리스의 수학과, 자연과학 연구에 관한 고대 학설들이 소개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15세기 중엽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의 활판 인쇄술 발명으로 지식과 정보의 신속하고도 폭넓은 전파가 가능해졌다. 중세의 우주관을 변화시킨 코페르니쿠스의 과학혁명은 중세의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기계론적 우주관이나 회의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무한함과 같은 근대적인 사고를 위한 토대

를 제공했다. 실로 르네상스시대의 과학기술 발달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낸 가장 찬란한 결과이다. 기계기술의 광범위한 발달은 정확성, 엄밀성, 관찰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면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분출케 하여 사람의 정신까지도 새롭게 만들었다. 학구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은 15, 16세기에 실현된 인체 관찰의 발달을 보게 한다. 인체해부학은 르네상스의 여러 예술가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니,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미켈란젤로(Michelangelo)와 같은 대가들의 해부학 연구를 통해 인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이해는 르네상스 미술의 빛을 영원히 밝혀 놓았다. 회화에는 수학적 원근법을 도입한 레오나르도 회화를 기초로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므로 예술을 하나의 과학의 시각으로서 다루려 하였다. 이렇듯이 기술의 과학적인 탐구는 그 시대 이전의 예술의 표현 방법을 재검토하게 하였고, 또 한편 화학, 해부학, 회화, 조각 미술이 이룬 발전은 완전히 새로운 표현 수단을 찾게 만들었다.⁹⁾

4) 자본주의의 성장

자본주의의 태동은 새로운 현실관에 적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자신을 재정립한 유럽 사회의 과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개인주의 성향의 또 다른 측면이다. 중세에도 특히 12세기와 13세기에는 팔목할 만한 수준의 상업 활동이 벌어졌지만 상업 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한 경제 체제가 꽃을 피운 것은 르네상스에 들어서였다. 르네상스 이전의 경제 행위는 정치적 종교적 이해득실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이 과학으로 발전한 것처럼 종교적,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로운 경제 체제가 서서히 발생했다. 자본주의의 목표는 수익창출이며 자본주의 체제는 실리주의로 이어져 개인주의의 기회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상상력, 창조력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개인에게 넓은 창조와 표현의 길이 열

렸다. 16세기 유럽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올라간 것은 경제 체제가 확대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¹⁰⁾

2. 르네상스 예술의 표현양상과 미의식

1) 재현의 미: 공간적 연속성

15세기 이전에 피렌체에서는 이미 자연에 담긴 신비스러운 공간과 인간의 정체성 및 독자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보여, 회화 미술에서는 새롭게 공간 의식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공간 의식은 자아와 제3자의 관계를 현실적인 거리감으로 확인하는 자세이다. 이에 따라 자연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려는 학구적인 탐구 정신이 나오게 되었다. 화면에서의 합리성의 추구는 인물의 세부묘사는 물론이고 해부학 연구에 따른 인체 묘사, 원근법에 의한 공간 구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원근법을 구사하여 묘사된 자연은 중세의 정(靜)적인 미를 동(動)적인 미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컨대 회화를 독립된 개성 표현의 장으로 전환시키게 된 것이다.

원근법은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르네상스의 문화적 열망에 부합하는 수학 및 기하학, 물리학 등의 과학적인 근거에 맞춘 이론을 탄생시킨다. 이와 같은 과학과 예술의 결합은 시대적인 특수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파노프스키는 원근법 이론에 대해 각 시대마다 다른 공간 관계 이면에, 각 시대의 세계관에 따른 공간 관계에 이르는 하나의 상징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파노프스키는 르네상스시대의 원근법은 인간과 세계, 대상간의 필연적인 거리에 의존하며, 원근법 체계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대립을 해소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원근법은 세계 속의 사건들의 기록이나 체계화하면서 예술가의 심리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자아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원근법은 르네상스시대의 특정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체와 세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상징하며 르네상스시기에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과 세계 ‘사이의 거리’를 두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재현하려는 시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완전히 평면인 벽화가 원근법에 의해 대상이 철저하게 보이는 이의 눈을 기준으로 재배열되는 과정을 통해 보는 이가 세계를 대상화하고 그것을 분석, 재구성, 재현함으로써 대상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결국 원근법의 등장은 르네상스인들이 세계를 보는 관점의 변화를 시사한다. 르네상스의 투시적 원근법은 화가가 세계를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중심으로 세계가 그곳에 수렴되도록 수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인간이 세계를 보는 눈을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외부세계와 자아는 명확히 분리되며, 인간이 거리를 두고 분석·재현해야 할 대상으로 변한다.¹¹⁾ 이와 같이 세계를 보는 인간의 관점이 바뀌었고, 그것에 대한 자세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었음은 르네상스 미술에 나타난 내재적인 의미, 즉 그 시대의 지배적인 정신적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기체로서의 유동적 인체미

15, 16세기에는 의학이 인체연구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기에 인체가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능력의 개발을 위해 인체에서 많은 소재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예술에 있어서 그 표현 방식을 변화시켰다. 회화와 조각은 화학, 해부학 등이 이루어 놓은 많은 발견으로 말미암아 극히 새로운 표현 수단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조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개발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시작 한 것이었다. 따라서 실현성, 개체성, 과학성 등을 중요시하게 되어

새로운 인본주의 문명과 문화의 길이 열렸고 이를 형상화하는 미술이 한 문화적인 전형으로서 부각되었다. 가령, 르네상스시대의 대표적 화가 가운데 하나인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의 작품에서는 놀라운 디테일 묘사와 삼차원적인 투시법, 이전의 중세 화풍과는 전혀 다른 견고하고 볼륨감 넘치는 인체묘사, 선의 표현력에 있어서 조형적인 힘과 생동하는 감정 등이 나타난다. 그의 이 시기 목판화는 두 선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으며 두꺼워졌다가 가늘어졌다가 선의 굵기와 강도가 자유자재로 바뀌면서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체 같은 긴장과 이완의 효과를 보이며 르네상스적인 신체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르네상스 예술에서 인체는 굳어있는 조각품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일 때 인체의 굴절과 동작에 의한 관절 부분의 크기나 비례를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화가의 눈의 위치에 따라 일어나는 크기의 변형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인체의 신체적 이상미에 대한 관점은 원근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과 관계되어 있어, 세계와 사물을 투시법에 의해 재정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와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하는 방식에 관련된다. 이전의 인체비례에 원근법을 첨가한 것은 인체비례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서 형성되는 법칙임을 천명한 것이다.

3) 초감각적인 미: 알레고리에 의한 시각화

신 플라톤 사상의 영향으로 인문주의자들은 신화에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교리를 부여했고 신 플라톤 철학의 상징적인 해석은 신화와 성서를 양립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교 교리는 알레고리를 통해 전달된다. 도상학과 도상해석학이 르네상스 미술을 고차원의 지적 영역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은 르네상스 미술이 종교 미술의 성격과 르네상스 자체의 인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고대 신

화와 플라톤 철학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문화는 인간 탐구에 목적을 두고 우선 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거리를 정립하기 위해 신학과 철학, 신화와 종교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도가 두드러진다.

고대의 이교적인 학문과 신학, 철학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통해 세속적이고 신성한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위엄이 공존하는 예술을 낳게 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신화와 점성술, 인간의 삶과 종교 그리고 철학이 하나의 원리에 묶여 진리의 절대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에 미술은 그 현상을 알레고리로 시각화했다. 유동적이고 다변적인 상황에서 공통된 원리를 추출하여 이에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한 것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사상이고 또한 그 원리를 시각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보급한 것이 르네상스 미술이다. 그렇기에 르네상스 미술은 인문주의의 이상과 신념을 담고 있으며 이에 총체적 지식과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IV. 르네상스 복식의 미적 가치와 상징성

1. 복식에서 개별주체적 사유 공간 확장

개인이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고 실현한다는 생각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은 근대사회에 출현한 것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반조건을 만들고, 이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 것도 근대사회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그리스도교는 서구 사회의 정신성과 문화적 지배인자로서 기능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제도 등 모든 것을 생산하

는 동력원이며 따라서 르네상스시대의 인간성의 성장과 함께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은 그리스도교와 휴머니즘의 조화로써 표면화되어 미술 양식에서는 원근법에 의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현의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르네상스시대의 복식은 중세시대의 보편적인 복식구조에서 탈피하여 개인의식과 개체성이 발현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외부 영역과 개체 그리고 주체와 타자를 분리시키는 장치가 되어 자율적으로 인체형을 구성하는 하나의 틀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유한 개인성을 표현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이전의 복식 개념과 구별되는 근대적 서구 복식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체자체의 선과 형태에 편입되어 신체를 따라 흐르거나 신체 윤곽선을 따르는 르네상스 이전의 복식양상으로부터 진전되어, 외부공간과 주체 사이에 거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리하여 복식을 통해 신체의 조형미를 인공적으로 개선하고 창조함으로써 주체의 독자성과 개체성을 나타내게 된다. 복식이 인체의 형태미를 인공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복식에 의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명확한 분리를 가져오며 이는 집합적 혹은 공적 영역에서 인식되는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보다 내밀하고 개인적인 차별화의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중세시대까지 복식은 자아개념을 모호하게 하는 외부 공간과 복식 공간을 결합시키고 하나의 일체로써 연결시키는 가치를 지녔으며 공적인 신체를 상징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르네상스 미술에서 그려진 도상이 ‘시점’의 거리와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식으로 한 평면에 대상을 투영하는 수법은 당대와 과거 고전시대 사이의 역사적 거리를 단축한 시대의 세계관을 상징한다.¹²⁾ 이에 따라 주체가 외부 그리고 타자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면서 객관적 조형으로서의 인체를 탈피하여 복식을 통해 인체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졌다. 인체는 복식에 의해 재구성

되어 세계와 자아는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부터 명확히 갈라지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재현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복식에서의 개인적 사유 영역의 발전은 복식조형을 통한 공간의 분리를 의미하며 주체와 타자의 분리 그리고 외부공간과 복식공간의 분리라는 상호 대립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발달되었다. 또한 물리적 분리로부터 심리적, 정신적인 경계로서 분리와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불명료하던 자아개념을 확장하고 구체화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복식은 그 의미가 재창조되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리고 외양(물질적인 미)을 통한 내면(정신적인 미)의 투영, 즉 눈에 보이는 미와 보이지 않는 미는 모두 명예롭고 가치있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 둘은 서로 하나의 원리에 묶여 있다는 신 플라톤주의의 고전적 서양 철학의 가치에 부합한다. 복식을 통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는 복식에 의해 표현되는 개별적 신체(individual clothed body)를 사적이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만들고 외부 세계의 공간을 객체화함으로써 명료한 구분을 짓게 되었다.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세계와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양자간의 구분이 명확해진 르네상스시대의 정신성을 반영하고 있다.

고딕시대 말기부터 시작된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형태의 복식 형태에 저항하는 입체적 구성법에 의한 인체 윤곽선의 명료성은 14세기 중반에 전반적으로 진전, 확장되어 인체의 윤곽선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로선의 강조로 인한 수평적 확장을 통해 복식을 하나의 심미적인 조형물로서 창조하였다. 이는 복식을 통한 개체성의 표현으로서, 균일화되고 통일적인 유니폼을 넘어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표상적 역할을 복식에 부여하는 것이다.

2. 개방적 인체미에 따른 표현기법의 다변화

르네상스시대에 인체연구의 발전으로 새롭게 재조명된 인체미는 과학성과 개체성의 발전과 더불어 조형적 힘과 인간내면 감성의 구체적 표현이라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중세시대와 비교했을 때 르네상스 복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복식을 인체형태에 일치시켜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체를 조형적인 유기적 통합체로서 인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르네상스 복식에 나타난 유동적인 인체미의 표현은 실루엣의 과장과 부피감의 강조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복식 요소의 대비와 중첩, 반복에 의한 율동감, 그리고 복식에서의 고유한 성별적 특징의 강화로 표면화된다. 14세기에 출현한 남성복과 여성복의 확연한 분리와 이에 따른 여성복에서 목선과 데콜테 라인의 강조와 몸에 밀착되는 상의는 스커트의 부피감 확장과의 극명한 대비효과를 연출한다. 특히 스커트에서 원추형이나 원통형의 실루엣을 만드는 파팅게일 등 각종 보정물의 고안으로 강렬한 형태미를 연출함으로써 당당한 신체미를 표현하는 인공적인 역동성을 보여준다.

후기에 나타나는 예로서는, 거대한 러프칼라에 의한 리드미컬하고 규칙적인 곡선의 반복, 그리고 2~3개 이상의 언더 스커트와 오버 스커트 중첩과 슬래시 효과에서 나타나는 안과 밖의 이질적 소재의 중첩에 의한 표면감과 색상 대비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남성복에서 강건하고 역동적인 미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패딩 기법의 적극적인 활용은 어깨선과 가슴의 양감 강조와 상대적으로 가는 허리를 만들고 다리를 노출함으로써 급격한 축소와 확대에 의한 대비효과를 확연히 드러내며, 상의에서 더블릿과 슈미즈의 중첩에 의한 레이어링이 나타난다.

르네상스시대에 새롭게 조명된 역동적인 세계관에 부합하는 인간상은 복식에서 새로운 미적 원형을 창조하게 된다. 이는 이후 서구 패션에서 하

나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감각적이고 풍부한 장식적 표현과 함께 복식 내부 선 기법의 다양화와 생동감있는 세부 디테일로 시각화되었다. 르네상스 복식은 이처럼 확연히 다양화된 디테일과 세부장식이 두드러지는데, 복식의 내부경계를 분할하는 장식선의 증가와 물결치는 러플과 날카로운 예각을 이루는 뾰족한 스테머커 등 곡선과 직선의 대비와 모티브의 장단, 강약의 대조효과를 인체의 이미지에 생동감을 부여하는데, 이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인체미에 대한 지향으로 인간 중심의 창조적이고 인공적인 미의식을 드러낸다. 이 같은 디자인의 세부 디테일들은 결코 고정적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전의 새로운 요소들을 통합하거나 교체하여 특징적인 요소들을 창안해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예를 들어 목둘레선의 처리방식에서 원형 러프칼라에서 부채형 메디치칼라로 전이되거나 스커트의 모양에 있어서 원추형 혹은 원통형의 교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유행으로서의 패션에 상응하는 시대적 미적 규범에 의한 복식 형태의 유동성이 나타나는 패션의 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3. 정신성을 투영하는 매체로서의 복식미

르네상스시대의 인본주의는 현실세계를 출발점으로 더욱 완성된 이상적 세계에 다가가려는 경향을 보이며, 현세를 죄로 얼룩진 부정적인 것이라 고만 보지 않고 오히려 현세는 이상세계의 반영이고 현세를 통하여 신의 세계까지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사상을 그 배경으로 삼은 것이다. 이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중세의 그리스도교 신학을 통합하고자 한 신 플라톤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이는 현실 세계 안에 잠겨 있는 미를 보면서 이상의 미를 동경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갈고 신의 세계에 다가가려는 고전주의 예술의 신념으로서, 극히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미의

세계를 탄생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이처럼 르네상스시대의 세속성과 현실공정에 대한 시각은 중세시대에 정신에 종속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하위개념으로 인식되었던 인체에 대한 재조명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정신적인 미에 가려있던 외면을 통한 인간의 신체미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복식을 통한 인체 이미지의 조정과 재편성, 과장과 강조가 미적 표현의 수단으로서 나타나기 시작 했다. 신체와 외양을 인식하는 것은 복식으로 상징화된 신체의 외양을 통해 그 사회와 문화적 가치와 미의식을 보는 것이다. 외양이 내면을 투영한다는 '상응'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고, 중세 시대의 맹목적이고 폐쇄적인 세계관을 지나 고대의 부활과 함께 재인식되었다. 본래, 보이는 몸에서 보이지 않는 도덕적 가치를 읽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전통으로부터 서구 문화에서 오랫동안 체화해 온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 자유의지와 기교에 의해 훈련할 수 있는 복식에 의한 인공적 신체 이미지가 지극히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복식을 통한 신체 외모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미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표현하는 기제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서양 철학의 사유에서는 고대로부터 몸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매체로 인지되어 왔는데, 여기서 몸이란 물질 자체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성요소로써 인식되는 매체 그리고 시대의 미적 관념을 나타내는 은유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외양을 훈련함에 있어서 과거의 육체가 선천적인 것으로 본성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면, 이제 육체는 보여지는 신체 혹은 복식에 의해 후천적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내면의 정신을 담은 육체 이미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위엄이 공존하는 복식미를 지양하게 하였다.

이 같은 르네상스시대의 상징적 신체 이미지에

서 복식의 정신성 투영은 숭고미로 유형화될 수 있다. 숭고는 장엄, 장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숭고의 특징을 위력(power), 길이(length), 높이(height), 깊이(depth) 등 연장의 위대성과 무한성으로 보았다. 또한 숭고는 인간이 대상에 압도됨과 동시에 한편으로 자아를 고양하면서 쾌와 불쾌의 혼합적 긴장감을 느낄 때 성립되는 미이다. 숭고미의 대상적 특징은 실제적으로 지각할 때 수, 양, 힘 등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커서 불형식성과 물 관계성을 갖는다는 점이다.¹³⁾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숭고미는 신체확장의 의미로서 인간의 위엄과 지위를 역설하는 것이며 이 시대의 특징적인 러프칼라는 인체의 형이상학적 부위인 머리, 목을 강조함으로써 이성에 의해 통제되는 군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인 '인간의 발견'이라는 의미를 전이시켜 인간존엄성과 자부심을 드러낸다.

V. 르네상스시대 복식에 대한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적 분석

1. 전(前)도상학적 기술

1) 복식을 통한 인체의 인위적 변형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에서 일차적 또는 자연적 주제를 밝히는 첫 단계는 작품의 형식을 인지하는 전(前) 아이코노그래피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복식 이미지의 분석보다는 외형적 인식의 차원으로서 접근이 필요하며 일차적 주제를 밝히기 위해 복식 형식을 인지하고 형태를 관찰한다.

르네상스시대의 전반적인 경향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무시하고 복식의 형태미를 추구하여 인공적인 확대와 축소 그리고 노출의 방법을 처음으로 복식에 적용시켰다.

과장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신분을 나타내기 보다는 점차로 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과장이란 일반적으로 물체나 형상이 가진 고유의 형태에서 벗어나 확대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복식에서의 과장은 대체로 실루엣의 과장을 의미하는데 복식의 선과 실루엣이 실제의 신체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복을 말한다.¹⁴⁾ 즉 르네상스시대의 여성복은 목둘레선을 가슴 깊이 파고 허리를 가늘게 조이며 소매와 스커트를 부풀려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을 이루었는데, 부풀린 소매장식과 러프 칼라(ruff collar)와는 서로 조화를 이룬다. 실루엣의 과장이 심해져서 코르 피케(corps-pique)나 스톰머커(stomacher) 등의 몸통을 줄라내는 콜셋과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파딩게일(farthing gale) 등 인체미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인공물이 사용되었다. 또한 남성복에서는 패드와 주름을 사용하여 체형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다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래 인체의 선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

2) 장식적 디테일의 극대화

십자군 전쟁때 군복의 칼자국이었던 슬래쉬(slash)가 장식요소의 하나가 되어 일대 성행을 이루었고, 소매 하나에 있어서도 무수한 슬래쉬와 여러 층의 주름, 행잉 슬리브 등 독특한 외관의 다양한 모양들이 나왔다. 슬래쉬는 찢어진 틈 사이로 다양한 색상의 천이나 흰 슈미즈가 보이게 했고 가장자리에 보석을 달아 움직일 때마다 펠럭거리며 호화로움이 장관을 이루었다. 16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러프 칼라(ruff collar)와 앞이 트인 로브(robe)는 그 시대 왕실의 패션 리더들에 의해 급속히 유행되면서 화려하고 정엄한 모양으로 발전하여 르네상스 전성기의 복식을 특징짓는 요소가 되었다. 르네상스 복식의 소매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매는 슬래쉬(slash), 퍼프(puff), 보석 등의 장식과 구성상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

으며 소매 끝은 러플(ruffle)이나 러프(ruff) 형태로 장식되었다.

3) 양감의 강조 및 중첩과 대비

남성복식은 16세기에 이르러 풍성했던 남자상의인 뿌르쁘앵(pourpoint)이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변형되면서 패드, 피프, 슬래쉬 등을 이용하여 부피를 크게 부풀려 과장된 외관을 보여준다. 패드는 원래 병사들의 갑옷 속에 신체보호의 목적으로 상의의 앞면에만 넣기 시작한 것이 일반 시민에게 옮겨져 박력과 화려함을 나타나게 되었다. 화려한 보석 단추는 장식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단추를 채우지 않고 열어 놓았을 때는 아름다운 슈미즈를 보일 수 있게 하였고 푸르푸앵의 소매는 어깨와 함께 패드를 넣어 부풀려 남성미를 과장했고, 갖가지 모양의 슬래쉬를 만들어 흰 슈미즈나 안감과 대비되는 색을 슬래쉬 사이로 보이게 했다. 남성복의 양말이 변형되면서 바지의 형태를 이룬 것을 쇼우스(chausses)라 했는데 처음에는 날씬한 것으로 별 장식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패드를 넣어 부피감을 크게 하였으며 극도로 부풀린 형식이 성행하였다. 소매부분은 크게 늘리고 V자로 가늘게 표현하였으며 허리선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페플럼(peplum)을 달았다. 러프칼라는 어깨를 가릴 정도로 큰 사이즈로 변하면서 두세 겹으로 중첩시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슴에서 아랫배에 걸쳐 역삼각형으로 붙인 장식적 가슴받이인 스토마커는 16세기 중반에는 끝이 뾰족하게 되어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대비효과를 나타낸다. 여성복식에서 스커트의 버팀대 위에 아름다운 속치마와 페티코트 스커트를 2-3겹 겹쳐 입고 그 위에 로브를 입었다. 여성복식의 구축적이고 인공적인 실루엣을 만들기 위하여 거창한 월 파팅게일을 사용하여 급격한 축소와 확대의 형태를 대비시켰다. 이와 같은 질량감과 부피감의 과장과 대비는 르네상스 복식을 근대복식 형태로 인식하게 하여 중세와의 확연

한 단절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복식의 최대 표현양식(maximalism)은 인간의 감성에 충실하고 과거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되는 의복의 여러 요소를 최대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2. 도상학적 분석

1) 관능성과 인공적인 미의식

둘째 단계는 주제 판명과 내용을 인식하는 신원 확인의 단계이다. 주제는 그 전통적 유형을 예술적 모티브의 조합이나 테마, 개념 등의 연결에 의해 파악한다.

자연의 미는 자연의 창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형미를 의미하며, 인공적인 미는 자연적인 미와는 달리 인간의 인위적인 창작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차적인 조형미를 지칭한다. 르네상스시대 여성복식은 가는 허리, 부풀린 스커트와 소매 등 인공적인 인체미의 강조가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성의 재생 목적으로 한 관능적 인간미를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아워글래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은 그리스-로마 고전 정신의 본질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근대 여성 복식의 개념의 기원이 되었으니 17세기 바로크 시대와 18세기 로코코 시대를 거쳐 19세말까지 르네상스풍의 새로운 여성복식의 조형미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르네상스 복식의 호화로움과 장식성은 다양한 디자인의 변형과 화려한 직물, 보석과 자수 장식으로 복식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더 하고 있다. 이는 현실 생활에 대한 정열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풍부한 감정의 표현으로서, 외양의 화려함으로서 형상화되었다. 특히, 여성복식의 상체가 더욱 타이트해지면서 목선을 깊이 내려 판 대담한 데콜레 로브(decollette robe)는 인체미의 노출과 강조에 의한 현세지향적인 관능적 미를 표출하는 것이다.

2) 과시성

복식의 상하의가 분리되면서 여성복의 바디스와 스커트의 길이와 형태감의 대비, 슬래쉬 장식에 의한 색상과 질감의 대비, 스커트와 칼라의 중첩에 의한 리듬감과 울동감의 표현 등은 중세시대의 정관(靜觀)적인 미의식으로부터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미의식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군주로 대표되는 르네상스시대의 이상적 인간관이 잠재적 창조력에 기초한 용기와 활력넘치는 행동의 자율성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결단력과 남성다운 힘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복식에서는 양적 과장과 부피감 강조를 적극적인 표현의 요소로 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대비와 대조, 중첩에서 나타나는 약동감은 보는 이의 시선과 감성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강렬함을 나타낸다. 현저히 차이나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명료함과 생기를 부여하여 시각적 변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르네상스시대의 생동하는 감정과 입체적인 인체미를 반영하며 표현성에 있어서 조형적 힘을 부여한다. 복식에서의 리듬은 시각적인 공간에서 선, 형, 색채, 소재, 빛, 그림자 등의 요소간의 관계를 공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선을 쉽게 유도하는 통일성을 전제로 한 동적 변화라 할 수 있다.¹⁶⁾ 이는 울동적이고 생동감있는 인체 이미지를 복식으로 형상화 한 것으로서, 중세의 보편성이나 단순성과 차별을 드러내는 르네상스시대의 근대적 미의 표현이다.

3. 도상학적 해석

1) 세속미를 통한 절대미의 실현

15세기 이후로 르네상스시대의 예술가들과 시인들은 물질적인 미와 선과 진리 사이의 융화(양립)라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널리 포용하였다. 르네상스시대의 미의식은 사회의 구체적인 문화적,

정치적 실제에 적용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5세기의 피코 미란돌라(Pico Mirandola)가 주장한 것처럼, 동물의 영역과 천사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은, 이성에 의해 두 세계로의 상승과 하강이 모두 가능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세속적 사랑은 단순한 감각의 만족이 아니라 절대미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므로 세속적 미에 대한 사랑도 인간의 영혼을 높은 곳으로 향상시켜주는 일종의 사다리가 되어 천국의 미로 연결되고 신과의 합일을 이루게 됨으로써 천상의 사랑과 합치된다. 이러한 신플라톤 주의적인 미와 사랑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성 함양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미와 선을 연관짓고 미를 통해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데 있다.

티치아노는 그의 ‘신성한 사랑과 세속적 사랑’을 지성적 아름다움과 시각적 아름다움의 조화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미이며 물질 자체인 복식을 통한 육체의 미에 대해 영혼의 타락과 연결짓는 것이 중세시대의 시대적 정신성향이었으나 신플라톤주의적인 가치관에 의한 인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세속적인 미와 외적인 미의 표현을 신성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각하게 된 것이다. 신플라톤주의적 가치관의 융합에 의해 신체적인 장식이 도덕성과 정신성의 함양에 기여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서 외적인 아름다움의 추구하고 내적인 미덕 사이의 연관성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 고전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이같은 르네상스시대의 인문주의적 성향은 복식의 호화로운 장식성을 통한 물질적인 미와 개별적 신체미의 추구 그리고 정신성의 융합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2) 역동적인 미

서양사회의 근대적 인간관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르네상스의 휴머니스트적 인간관은 르네상스시대의 유동적인 미와 인공적 개체성을 표현하는 복식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

한 요소이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세속의 삶이 점차 활기를 띠면서 어느 때보다 인간의 능동성과 활동성이 삶 속에서 중요해졌고, 인간과 속세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교리와의 관련 한 인간의 세계관의 재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 르네상스시대의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숙명론에 대한 인간의 의지론은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의 주류사상이었다.

휴머니스트의 ‘자아를 의식하는 인간관’은 근대 서양사회의 이념 내지는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르네상스 사가들이 휴머니스트의 인간관을 고찰해 왔다. 휴머니스트들의 인간관에서 ‘자유·의지·운명론’의 관계는 ‘낙관적·비관적 인간성론’과 함께 휴머니스트 인간성론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행동의 자율성에 의한 인간능력을 신뢰하는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문화 전반에 걸쳐 자아를 드러내는 표현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복식의 실루엣 또한 타고난 육체의 재현이 아닌 재구상되고 인간의 창조력에 의해 재형성되는 영역이 된 것이다.

르네상스는 변천과 재구성의 시대로서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식주체의 출현이라는 동시대의 일반적이고도 본질적인 경향은 복식에서도 많은 인공물을 고안하여 인체를 재구성하였고 특히 남성복식에 있어서 외관이 과장된 복식을 통해 자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극히 기교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기 만들기라는 르네상스인들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복식에서 악동하는 미의 형성이라는 현상은 자신을 외부세계 그리고 타자와 구분하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근대적 개인성의 표현이라는 르네상스인의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 즉 내재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숭고미

르네상스 정치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왕권의 성장으로써, 왕들은 바다 건너 새로 발견된 땅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오는 재물을 등에 업고 권력 기반을 닦았다. 대부분의 귀족은 지방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각종 사교행사와 화려한 무도회와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싶어했다. 따라서 르네상스 이후 수세기를 거치면서 ‘궁정’은 유럽의 문화와 역사 발전의 본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르네상스의 고향이었던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이전 수 세대에 걸쳐 지속되던 다양한 정치실험이 막을 내리고, 궁정과 그곳에서 향유되던 관습이나 문화가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궁정이 문화적으로 사회의 중심이 되어 유행은 궁정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시민에게는 궁정인이 명확한 패션리더로서 선택된 자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유행을 모방하여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모습만이라도 패션추종자(fashion followers)로서 자기를 그들 사이에 끼게 하는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중세를 지나 문명인으로 변화된 르네상스인의 모습 자체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르네상스의 궁정사회는 새로운 문화와 행동양식의 출현지였다. 에드워드 뮐러(Edward Muir)에 따르면 근대 이후 우리 시대로까지의 역사의 과정은 문명사회의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며 특히 이러한 변화의 원천 가운데 하나가 세련된 외양과 예절을 강조하는 독특한 문화의 출현이었고, 이러한 문화는 근대에 출현한 궁정사회를 중심으로 탄생했다고 지적한다.¹⁷⁾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사라지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위세를 위엄있는 복장으로 나타내려 했고 귀족들은 이를 추종했다. 실제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거창한 윌 파워링을 사용함으로써 작은 체격이지만 당당한

위력을 보일 수 있었다. 따라서 궁정을 중심으로 양적 확대를 통한 복식이 출현했으며 그 복식의 핵심은 초월적 숭고함의 시각화이다. 캐시우스 롱기누스(Cassius Longinus)¹⁸⁾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

임과 함께 인간 이상으로 위대한 자, 즉 그를 초월하는 높은 것을 동경하는 존재이다. 즉 숭고는 위대한 정신이라고 정의되며 이러한 특징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궁정사회의 정신적 배경이었다.

<표 2> 르네상스시대 복식에 대한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적 분석

<p>전(前) 아이코노그래피 단계의 인식</p>	<p>- 복식을 통한 인체의 인위적 변형과 장식 디테일의 극대화: 깊이 내린 목선과 가늘게 조인 허리선, 부풀린 소매와 스커트의 아워글래스 실루엣·인체미의 인위적 변형을 위한 인공물 사용/슬래쉬, 행잉 슬리브, 러프, 퍼프, 보석 및 자수 장식 등 호화로운 장식</p>
<p>아이코노그래피 단계의 분석</p>	<p>- 관능성과 인공적인 미의식 :인간성의 재생을 목적으로 한 관능적 인간미 표현/현실생활에 대한 정열과 세속적이고 풍부한 감정의 표현/인체미의 노출과 강조에 의한 현세지향적 관능미</p>
<p>아이코놀로지 단계의 해석</p>	<p>- 세속미를 통한 절대미의 표현: 신플라톤주의와 인문주의의 융화로 인한 지상의 미와 천상의 미의 화합 /인간의 자아와 개체성 개념 세속화·세속적 개별 신체미의 추구하고 정신성성의 화해모색/물질적인 미에 대한 가치 확대</p>
<p>해석 대상의 전형</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1> 공주 아외복 (출처: 르네상스시대의 궁중복식도감, 1985, p.75)</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2> 공주 정장 (출처: 르네상스시대의 궁중복식도감, 1985, p.7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3> 왕비 평상복 (출처: 르네상스시대의 궁중복식도감, 1985, p.25)</p> </div> </div>
<p>전(前) 아이코노그래피 단계의 인식</p>	<p>- 양감의 강조 및 중첩과 대비: 상의와 하의에서 부피를 크게 하여 과장된 외관/패드와 퍼프기법으로 양감을 강조/슬래쉬에 의한 색상과 질감의 대비/여러 겹의 러프 칼라 그리고 여러 겹 스커트, 로브의 중첩/과장된 상의와 가는 허리, 파팅게일을 이용한 급격한 확대와 형태의 대비</p>
<p>아이코노그래피 단계의 분석</p>	<p>- 과시상: 중앙집권적 왕권강화로 인한 군주의 궁정인들의 위엄과 위세 과시/르네상스시대의 이상적 인간관인 용기와 활력 넘치는 자율성 표현/생기와 볼륨감 넘치는 인체에 대한 미의식 반영</p>
<p>아이코놀로지 단계의 해석</p>	<p>- 숭고미와 역동적인 미: 중앙집권화에 따른 전제주의 왕권/궁정문화의 영향/신체연장과 양적 확대를 통한 위엄과 과시/르네상스시대의 이상적 정신성향을 나타내는 결단력과 과감성, 강건성 대두/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능력 인식/인간 자유와 생명력의 구체적 실현</p>
<p>해석 대상의 전형</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4> 여왕 정장 (출처: 르네상스시대의 궁중복식도감, 1985, p.7)</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5> 왕비 정장 (출처: 르네상스시대의 궁중복식도감, 1985, p.12)</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 6> 공중시녀 정장 (출처: 르네상스시대의 궁중복식도감, 1985, p.125)</p> </div> </div>

미적 가치에서 숭고는 기형적, 무형적 대상들과 맞닥뜨릴 때 체험되는데 이 대상들은 숭고의 느낌을 일으키기 이전에 먼저 위압적인 대상, 즉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며 다가오는 대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불일치 속에서 일치를 이룬다. 즉 수치나 객관적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일종의 경탄이 표현되어 있다. 숭고는 관조의 감정이 아닌 동요의 감정인데 기본적으로 숭고는 대상의 크기를 평가하는데서 성립하는 만족감의 일종인 것이다. 복식에서 무한의 숭고미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연스러운 형태미를 비례와 조화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달리 신체확장을 복식으로 과장되게 장식함으로써 인간의 위엄, 지위 등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를 수직적 강조, 면적의 강조, 방향의 강조, 원형의 강조 또는 국부적 강조를 통한 복식의 장식성이라 한다. 즉 신체 연장의 효과를 통하여 인간의 위엄,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복식의 숭고미인 것이다.

르네상스 복식의 숭고미는 16세기 르네상스시대의 의상을 어느 것보다도 명확하게 특징짓는 요소 중 하나인 러프칼라와 파딩게일 그리고 남자복식에서 양감의 강조라는 징후로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내제적 의미는 근대 전제주의 왕정시대의 개막에 따른 왕권의 강화와 독특한 궁정문화의 형성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세계와 예술적 표상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하는 르네상스시대의 궁정복식을 파노프스키의 도상학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대상의 내재적인 의미는 미술 뿐 아니라 당시의 문학, 음악, 신학, 정치이론 등의 이면에 흐르는 일관된 사조로서 그 형식과 내용에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기본적인 원칙들,

즉 내재적인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 당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예술미에 대해 복합적인 시각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르네상스는 폐쇄된 중세 봉건사회로 부터의 해방과 자가갱신을 이룩하여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기운을 생동하게 하고 인문주의를 부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재결합이 고전의 과거로 향한 단순한 회귀가 아닌, 양식적이나 도상적으로 고전과 중세로부터 구별되면서도 그것에 의존하며 연관되는 새로운 표현을 지향하였다. 자연과학의 진보, 기계기술의 발달, 지리상의 발견 등을 포함한 인간 지식의 확대라는 문화사적인 조건과, 대도시 중심의 화폐경제를 근거로 한 국가 체제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조건이 르네상스 발생의 주요 기반이었다.

이러한 개념의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세로부터 뚜렷한 전환적 혁신을 이루는 르네상스 복식의 상징성을 사회문화적 현상과 예술에 표현된 미적 가치와 상호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개별 주체성, 개방적 표현범위의 확장, 능동적 사유에 따른 미의 생동성, 이성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한 현실관, 고전주의와 중세 기독교에 대한 반권위주의와 계몽사상에 의한 초감각적인 미, 알레고리에 의한 사상적 배경 등으로 구분하여 논증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들의 논증을 토대로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에서 제공하는 방법론적 이론을 대입하여 각각의 주제 요소들을 대해서 내면의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경향인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능성과 인공적인 미의식의 재현으로서, 고전주의와 인문주의가 융화된 외적인 미와 선과 진리의 공존으로 나타나는 세속적인 지상의 미를 통하여 절대적인 천상의 미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의 분출이기도 하다. 또한 과시미와 숭고미 그리고 역동적인 미의 창조는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의지력이라는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전사 및 군주의 자질을 새로운 이념적 가치로 설정하며 의지론과 숙명론 논쟁 사이에서 인간의 힘에 대한 적극성을 재인식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작품과 동시대의 복식은 독특한 시대성을 형성하는 세계로부터 나온 것이며 복식은 시각적 형태나 모티브의 재현 혹은 주기적인 변형을 초월하여 종교, 철학이라는 고차원의 세계를 표상하는 정신적, 예술적 상징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복식에 대한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 방법론적 해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과 정신적 실재의 세계를 반영하는 표상으로서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p170-171.

- 16) 김혜수 (2012). 한국과 일본의 민속의상에 나타난 스트라이프의 리듬특성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2), p.62.
- 17) Edward, W. M. Jr. (2007). *The Culture Wars of the Renaissance: Skeptics, Liberties and Oper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127.
- 18) Cassius, L. (265). *On Great Writing(On the Sublime)*. Grube, G.M.A. trans (1957). New York: Liberal Arts Press, pp.15-19.

참고문헌

- 1) Erst, C. (1927). *Individual and the Cosmos in Renaissance Philosophy*, Mario, D. trans (1964). New York: Harper, pp.36-40.
- 2) 김민자 (2007). 복식미학 강의 1, 서울: 교문사, p.14.
- 3) 위의 책, p.17.
- 4) Wilcox, R. T.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69.
- 5) Panofsky, E. (1939). *Studies in Iconology: Humanistic Themes in the Art of the Renaissance*, 이한순 옮김 (2009). 도상해석학 연구, 서울: 시공사, p.23.
- 6) Burckhardt, J. C. (1860). *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 이기숙 옮김 (2007).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서울: 한길사, p.201.
- 7) 위의 책, pp.540-541.
- 8) 위의 책, p.361.
- 9) Lamm, R. (2004). *The Humanities in Western Culture*, 이재희 옮김 (2007). 서양문화의 역사 2, 서울: 사군자, pp.202-206.
- 10) 임엽방 (2003).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p.28.
- 11) Lamm, R. 앞의 책, p.218.
- 12) 임엽방. 앞의 책, pp.300-302.
- 13) 위의 책, pp.301-302.
- 14) 광태기, 이세종 (2007). 2011년 F/W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과장형 재킷의 디테일별 분석,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3), p.63.
- 15) 박선경, 변혜진 (2007). 21세기 맥시멀 룩의 조형미에

Panofsky's Iconological Interpretation of Renaissance Dress

Lee, Eun Ji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Renaissance humanism has submerged deeply into many areas of the arts and led to iconological interpretations which has imposed sophisticated Zeitgeist and the intellectual landscape of philosophy to Renaissance dress. This gives us a useful point of view for interpreting the intrinsic meaning and symbolic value of Renaissance dress. Fashion was closely linked to the magnificent courtly display of royal author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modern Renaissance. Renaissance dress was particularly interpreted from a neoplatonic perspective as the essential first step on the path to divinity and can be seen as manifestations of the neoplatonic concept of ideal external beauty linked to inner virtues. From this perspective, the lavish exterior of Renaissance dress had distinguishing and revolutionary features in accordance with other areas of the arts and social phenome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intrinsic meanings and symbolic value of Renaissance dress through Panofsky's iconological interpretation based on social and cultural symptoms and artistic features which reflect the Zeitgeist. On the basis of argumentative demonstration, this paper will offer and propose one of the sublime aesthetic values of dress through Panofsky's details.

Key words: Renaissance dress, humanism, intrinsic meaning of dress, iconological interpretation and analysis